

## 승모판막 협착증 환자에서 승모판 치환술과 교련절개술의 비교평가

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신동근·김진·장재한·김애증·

박진규·김민호·구자홍·조증구·김공수

전북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83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단순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판막치환술 및 교련절개술을 시행받은 95명을 대상으로 수술수기에 따른 수술전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다음 결론을 얻었다.

환자의 나이는 평균  $40.5 \pm 10.2$  (승모판치환술  $41.8 \pm 9.4$ , 교련절개술  $38.0 \pm 11.2$ )로, 남자 40명 (치환술  $n=27$ , 교련절개술  $n=13$ ), 여자 55명 (치환술  $n=35$ , 교련절개술  $n=20$ )이었고 연령분포를 살펴보았을 때, 40대가 35명 (치환술  $n=25$ , 교련절개술  $n=10$ )으로 가장 많았다. NYHA 기능분류 III 이상의 기능장애는 승모판치환술의 경우 술전 72.6% ( $n=45$ )에서 보였으나 술후 3.4% ( $n=2$ )로 감소하였고, 교련절개술의 경우는 술전 54.5% ( $n=18$ )에서 보였으나 술 후에는 없었다. 수술생존자중 판막치환술의 경우 91.2%에서, 교련절개술의 경우 93.8%에서 NYHA 기능분류상의 기능호전을 보였다. 술전 심방세동의 술후 정상 동율동으로의 변환은 판막치환술 6.5% ( $n=3$ ), 교련절개술 5.6% ( $n=1$ )에서, 그리고 새로운 심방세동의 발생은 판막치환술 12.5% ( $n=2$ ), 교련절개술 13.3% ( $n=2$ )에서 관찰되었다. 단순 흉부촬영상의 평균 심흉곽비의 변화를 보면, 판막치환술의 경우 술전평균  $0.59 \pm 0.07$ 에서 술후  $0.53 \pm 0.07$ 로 감소하였고, 교련절개술의 경우는 술전  $0.53 \pm 0.07$ 에서 술후  $0.52 \pm 0.07$ 로 변화하였다. 심장기능의 변화는 수술전후의 심초음파상의 EF, LVIDd, LVIDs 및 LA DI dimension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수술 사망율은 판막치환술 8.1%, 교련절개술 3.0%이었다.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판막치환술  $51.1 \pm 37.1$ 개월, 교련절개술  $62.4 \pm 39.6$ 개월이었고 만기 사망율은 판막치환술 1.7%, 교련절개술 6.5%이었고 Actuarial survival rate는 판막치환술의 경우 5년에 93.5% 10년에 78.0%, 교련절개술의 경우는 각각 90.0%이었다.